

타코마 지역 목사 (소명)

2017 10 19



“사실 처음엔 소명에 대한 책을 대할 때 제목에서 보듯이 새로운 것이 없는 일상적인 서명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생각했음. 그러나 내용에 들어갈수록 탁월한 그의 식견과 교회 안에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는 그의 안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소명이 무엇인가를 구분한 것에 새로움을 느끼며, 일차적 소명과 이차적 소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깨달아야 비로서 삶의 부분에서 진리를 실천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에 절대적인 동의를 하게 됨.”

“래버튼 교수가 풀러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당시 목회학 박사 과정 입학을 허락 받았는데 그 때만 해도 래버튼 교수님을 제대로 알지 몰라서 학기 신청을 못한 것이 지금에 와서 큰 후회가 됨.”

“오늘날 교회가 힙합 세상인데 교회는 폴카를 추고 있다는 그의 지적처럼 교회와 세상과의 단절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안타까움에 공감하며, 우리 지역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 특별히 젊은 세대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이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할 때 어떻게 이 간격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됨.”

“저자는 이러한 소명에 관한 문제를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는 지적 앞에 깊은 동감을 하지 않을 수 없음.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필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일차적인 부르심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차적 부르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차적인 부르심을 잃어버린다는 내용에 큰 감동을 받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

“이러한 일, 이차적인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평신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있어 깊이 생각해 볼만한 내용이라는 지적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드는 것은 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며 우리들의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에 있다는 내용에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되며 이 작업은 평생의 사역이라는 생각을 갖게 됨.”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일차적 소명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야 비로서 삶의 모든 부분, 즉 크고 작은 일에도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가 강조한 삶의 소명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 그리고 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 소명의 완성이라는 주장에 깊은 공감을 가짐.”

“소명에 관한 전체의 내용이 너무 소중한 부분들이어서 교인들과 꼭 한 번 나누고 싶은 내용임을 모두가 공감.”